

지역 매 아리

부안군, 세계스카우트잰버리 붐-UP 간담회 성황리 마쳐

부안군은 24일 부안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격포초등학교 등 관내 40개 초·중·고등학교 교장 및 교사를 초청해 2023년 제25회 부안 세계스카우트 잰버리 붐-UP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2023년 세계잰버리가 부안에서 개최된다는 것을 다 지역 학교와 학생들에게 널리 홍보하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스카우트 대원과 활동 등이 확대돼 스카우트가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서로 의견 교환을 위해 마련됐다.

부안군은 2023년 세계잰버리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의 좋은 의견을 검토해 잰버리 관련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잰버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스카우트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우리 청소년들이 세계 청소년들과 교류하면서 소중한 우정을 나누고 긍정적인 마음과 진취적인 도전정신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싶다"며 "세계잰버리 개최지로서 잰버리 붐을 일으키고 스카우트가 활성화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화훼장식기능사 6명 배출

고창군 농업기술센터가 지역 농민대상 화훼장식기능사 자격증반을 운영해 6명이 최종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4일 밝혔다.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4월부터 4개월여간 지역 농민들을 대상으로 화훼장식기능사 자격증 취득반을 운영했다. 40대 초반의 농민 15명은 매주 화요일 저녁 농업기술센터 교육장에 모여 최장만 교수(전북대학교)의 지도로 주경야학을 했다. 40대 초반의 농민 15명은 매주 화요일 저녁 농업기술센터 교육장에 모여 최장만 교수(전북대학교)의 지도로 주경야학을 했다.

화훼장식기능사는 화훼장식의 종류 및 활용, 사양꽃이, 동양꽃이, 꽃다발, 신부화 제작 등 실습 위주 교육이 진행됐다.

수료 후에는 국가자격증 필기시험과 실기 시험에 응시해 6명이 최종합격하는 쾌거를 거뒀다. 자격증 취득을 통해 전문 플로리스트로 일을 하거나 꽃집창업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군은 수료생 전원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과정이 끝난 후에도 보수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교육에 대한 열의와 많은 관심 덕에 높은 합격률을 보인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 화훼산업의 발전에 맞추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선진농가 육성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정읍시통합방위협의회가 최근 '일본을 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향하여'란 주제로 2019년 3/4분기 통합방위회의를 개최했다.

한반도 평화통일을 향하여

정읍시, 통합방위회의 개최

정읍시통합방위협의회(의장 유진섭 시장)는 최근 '일본을 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향하여'란 주제로 2019년 3/4분기 통합방위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통합방위협의회 위원과 예비군 중대본부장, 군부대 지휘관, 읍·면·동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통합방위회의는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지역 안보 유관기관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안보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자리에서 2019년도 상반기 통합방위대 추진성과와 하반기 추진계획, 지역방위와 국가안보태세확립을 위한 방안을 놓고 활발한 논의를 벌였다.

안건별로 제시된 실천사항으로는 △청소년·시민 역사안보교육 강화 △국산품 애용 운동 전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및 비상급수 수질 안전관리대책 △제412차 민방위의 날 화재 대피 훈련 참가 △2019년 하반기 민방위 비상 소집훈련 △2019년 하반기 민방위 교육 및 시민강좌 △전시 준비태세 점검 등이다.

유진섭 시장은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역방위태세를 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더욱 굳건한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가 고창 농생명식품산업의 경쟁력”

유기상 군수, 전북대 고창캠퍼스 농생명학과 재학생 대상 특강

유기상 고창군수가 지역 농식품 산업을 이끌 인재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고창 먹거리로 전 세계인을 사로잡자”고 강조했다.

유기상 군수는 23일 오후 7시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를 찾아 농생명과학과 재학생 110여명을 상대로 2시간 동안 특강을 펼쳤다. 이날 유 군수는 한반도 첫수도의 의미, 전문 농업인으로서 자긍심, 농생명식품산업의 강점 등을 이야기 했다.

유 군수는 “일본의 수출규제, 미국

의 보호무역주의 등이 자칫 식량·식품 전쟁으로 번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고창의 절대 강점인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활용한 참신한 가공품들로 전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아 달라”고 말했다.

통상 식량(Food)은 무기(Fire) 연료(Fuel)와 함께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3F'로 불린다.

이에 민선 7기 고창군은 식량생산, 홍수조절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 존중'을 위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

하고, 지역 농민들에게 일정 수량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이날 유 군수는 “최근 건강을 염두에 두고 있는 블랙보리 등 국내 식품대기업이 고창과 손을 잡자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며 “고창군은 전문 농업인 여러분의 배기 넘치는 도전을 두 팔 벌려 환영 한다”고 말해 학생들로부터 큰 환호성을 받았다.

한편,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 농생명과학과는 지자체가 참여해 지역 내 농생명분야의 맞춤형 전문 인력을 양성을 위해 2012년 개설됐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군, ASF 거점소독소 운영... 차단 방역 총력

부안군은 1차 경기도 파주, 연천과 2차 경기도 김포, 파주 등 북부지역 및 한강 이남까지 잇따라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관내 유입되지 않도록 ASF(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방역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부안군 사수를 위한 방역태세 점검을 실시하고 근무자를 격려했다.

한근호 부군수는 “제17호 태풍 티파에 의한 강우로 차단방역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추사 주변 소독과 생석회도포 등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군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악성기축전염

병 없는 청정 부안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는 ASF 발생 및 전파 방지를 위해 농장 및 관련시설에 대한 소독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줄 것과 ASF 의심증상 여부를 관찰해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안=김석진기자

민주평통 정읍시협의회 출범... 김태룡 신임회장 취임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이자 평화통일 관련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읍시협의회가 최근 정읍시청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출범식은 유진섭 시장과 최낙삼 정읍시의회 의장, 역대 정읍시 협의회장 등 새롭게 구성된 51명의 자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신규 자문위원에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인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 대행기관장인 유진섭 시장이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번 19기 자문위원은 2년의 임기 동안 기획 홍보와 여성, 청년, 국민소통 등 4개 분야에서 지역 사회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하게 된다.

제19기 민주평통 정읍시협의회를 이끌어 가게 된 김태룡 신임회장은 “앞

으로 2년의 임기 동안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자문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각계각층의 평화통일에 대한 목소리를 수렴해 평화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유진섭 시장은 “은 국민이 염원하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의 합의와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활동해온 경륜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통일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산해 통일 100년의 미래를 준비해 가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19기 민주평통 정읍시협의회는 광역·기초의원 및 지역 내 직능단체 대표 등 각계 인사 5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2년이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가 제9회 전북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에 참가해 개인전 부문 2명의 수상자를 배출하고, 단체전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상상의 날개가 '활짝'

정읍시, 전북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 수상 '영예' 단합·실력 모두 입증... 단체전·개인전 상 휩쓸어

정읍시가 제9회 전북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에 참가해 개인전 부문 2명의 수상자를 배출하고, 단체전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대회는 최근 농업인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제시 국립청소년 농생명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개인전 △블로그 포스팅 청년부 △블로그 포스팅 장년부 △라이브 방송 △UCC △사업계획서 발표 5개 분야 경진이 진행됐다.

이후, 단체전 △정보화상 △화합상을 두고 농업인들이 경진을 펼쳤다. 개인전 UCC 부문에서 정우면 푸른 들농원 정갑남씨가 최우수상·블로그 포스팅 부문에서 덕천면 황진리 농장 이명필씨가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

또 단체전에 참가한 이들은 '농촌이 대세를 주제를 연극공연 등을 펼쳐 단풍이인 소풍을 통해 농업정보화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였다.

그 결과로, 단체전 화합상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게 되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블로그 마케팅 교육·e비즈니스 소독 창출 교육·농업인 정보화 교육 등을 실시해 정보화에 능력이 있는 농업인 육성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소통·연결 정보화로 선도 농업인을 육성하고, 온·오프라인상의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읍=김대환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It features several bottles of wine, a cartoon bear mascot, and text describing the wine's quality and availability. The text includes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간산병주와 함께 오디주의 '참'맛을 느껴보세요.', and lists various gift sets with prices and quantities.